

영혼 없는 사회의 교육

교육의향

추교준
지혜학교
철학교육연구소장



이계삼. 그는 나의 글쓰기 선생이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 본 적은 없지만, 30대 초반 그의 글을 처음 접했을 때 나도 이런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생각하는 그의 글의 미덕은 문장이 정갈하다는 점이다. 막힘 없이 술술 읽힌다. 그게 다가 아니다. 문장의 정갈함은 글이 담고 있는 문제의 절박함을 오롯이 드러낸다. 누구나 읽어도 내용이 쉽게 이해되지만, 누구도 그 문제를 쉽게 지나치지 못하도록 하는 힘이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글을 읽고 나면 그가 씨름하고 있는 교실에서의 번민과 고통에서 쉽게 고개를 돌릴 수 없었다. 그 후로 종종 학생들 앞에서 글쓰는 법을 이야기하며 그의 글을 소개하곤 한다.

2010년 이후 그는 현장에서 '교육의 불가능'을 마주하면서도 마음속에 '농업'과 '인문학'이 만나는 '삶을 위한 교육'을 새롭게 꿈꾸었다고 한다. 그 즈음 어느 강연 자리에서 "새어겐 동지, 거미

에겐 거미줄, 인간에게는 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관계를 '우정의 공동체'로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자가 자신의 언어, '스스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솔한 목소리가 요구된다. 그의 말을 읽으며 나는 학생들과 함께 막혀 있던 생각을 툴고, 그렇게 영혼을 돌보는 교육을 상상했다.

저기 오늘날 우리의 권력자를 보라. 2년 반 동안 자기가 쥐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도, 영혼도 없이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있다. 어떤 이들은 권력자를 꼭두각시 삼아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고, 또 어떤 이들은 권력자 앞에 바짝 엎드려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 그 사이 나라 곳곳은 병들어 가고 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한 모습이 아닌가? 그의 행실은 생각도 묻지 않고 영혼을 돌보지도 않은 채 내가 생각하는 답이 아니라 남이 정해준 답을 찾는 일이, 그렇게 오직 교과 성적을 올리는 일이 교육의 전부라고 생각해 온 교실 속 풍경과 너무 닮아 있지 않은가!

오늘날 우리가 처한 총체적 위기는 우리의 교육이 빚어낸 결과이다. 이러한 사회는 또다시 교육을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는 악순환 속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

다. 학교란, 척박한 현실 속에서 유일하게 이상을 꿈꿀 수 있는 곳이라는 프롬의 주장(『소유냐 존재냐』 중)을 받아들인다면, 교육에서부터 이 악순환을 끊어 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를 꿈꾸는 일은 무엇보다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학교라는 곳에서 학생들은 함께 힘을 모아 아직 오지 않은 현실을 지어올리는 생각과 경험을 쌓아야 한다.

이 땅의 권력자가 한 말 같지도 않은 말이 유튜브를 통해 울려 퍼지고, 모두가 하야, 탄핵, 당선 무효를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나는 이계삼의 책, '영혼 없는 사회의 교육'을 펼쳐든다. 2009년 교실에서 그의 절규가 오늘날 우리의 절망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영혼이 없는 사회에서 그는 무엇에 맞서 몸부림쳤던가? 교육의 불가능에 절망한 뒤 희망을 짓기 위해 녹색당 후보로 나섰던 2016년 선거 이후, 그는 모든 공론장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나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허둥대고 있다.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생각을 툴고 영혼을 돌보는 교육을 더 늦기 전에 눈앞의 학생들과 함께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책을 펼쳐 든다.

社說

세상 변했는데 아직도 '연탄지원' 이라니

광주시, 탈석탄의 길 고민해야

광주시의회 박필순 의원이 광주시에 조속한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촉구 하고 나섰다. '시대착오적인 연탄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더 나은 에너지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기후위기 시대,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전환이 대세로 떠오른 지금 시의적절한 지적이다.

탈석탄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세먼지를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 하지만 광주는 지역내 유일한 연탄공장인 남선연탄 폐업 이후에도 연탄 사용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지원을 늘렸다고 한다. 사회적 약자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지만 박 의원이 지적한 친환경 난방 지원과 에너지 바우처 지원,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등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탈석탄이 어려운 것만도 아니다. 최근 광주에서 탈석탄법 제정과 재생에너지 입법 촉구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이 시작된 것도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시민의 열망이라는 점에

서 긍정적 시도다. 연탄의 시대는 완전히 저물었고 지구촌은 탈석탄으로 향하고 있다. 당장 영국은 지난 달 산업혁명을 이끌어 온 142년의 석탄역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국제기후변화 대응 민간단체인 '350.org'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와 독일도 화석연료 산업에서 공식 탈퇴를 선언했다. 브라질에서는 최대 규모의 해상 화석가스 프로젝트를 중단시켰다.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이라는 의미도 많이 퇴색됐다. 오히려 석탄에서 벗어나 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지원할 경우 같은 비용으로 이들의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

세계가 탈석탄을 추진하는 이유는 안전과 환경 때문이다. 운송 등을 감안하면 석탄이 더 이상 값싼 에너지원도 아니다. 광주시는 지금부터 석탄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큰 그림을 준비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다. 세상도 이미 바뀌었다. 비록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전환은 우리가 꼭 가야 할 당연한 길이다.

자원회수시설 설치 또 다시 늦출 수 없다

광주시 다음 주부터 3차 심사

광주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 작업이 다시 시작됐다. 이번이 3번째다. 심사가 시작되면 입지 후보지가 공개되고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돼 최종 결정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광주시가 올해 안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고 환경부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기대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광산구 4곳과 서구 1곳, 남구 1곳 등 자치구가 신청한 총 6곳의 후보지를 놓고 적격지를 찾는 첫 논의를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 동구와 북구는 후보지가 없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입지선정위는 5개 자치구 주민대표와 교수 등 전문가 5명, 시의원 2명, 시청 2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입지선정위 첫 회의에서는 총 6곳의 후보지에 대한 검증 절차와 심사기준 등이 마련된다. 전문기관을 선임해 후보지 현장사찰을 위한 조사계획도 수립한다.

광주시로서는 자원회수시설이 제

때 마련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상황이다. 당장 광주시의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7700여 톤으로 이 가운데 600여 톤을 매립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단 1곳 뿐인 948만㎡의 매립지는 남은 양이 570여 만㎡에 불과하다. 오는 2030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매립하지 않고 소각해야 하는 바뀐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면 쓰레기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타지역에 쓰레기 처리를 의뢰해야 하는 개연성도 높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친 공모가 무산되는 등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한 광주시의 노력은 안타깝다.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 안된다. 무엇보다 광주시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견을 해소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들도 그동안 기피시설로 여겨져 온 자원회수시설을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의 진보'를 신뢰해야 한다. 열린 마음으로 대규모 투자와 인센티브를 받아들여 지역을 쾌적한 기회의 도시로 만드는 것이 곧 발전의 전환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일(현지시각) 북마케도니아 스코페 인근에서 사람들이 은하수와 그 주변을 지나는 혜성 'C/2023 A3'(프진산-아틀라스 혜성)을 관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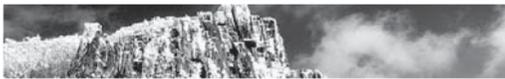
신화/뉴시스

서석대

"레이디스 앤 젠틀맨, 이런 저런 그런 분들, 그리고 당신."

최근 회전문을 둔 뮤지컬이 있다. 공연계에서 회전문은 '같은 작품을 반복해서 보는 것'을 의미한다. 비싼 티켓값과 그 돈을 들고서도 한 자리 잡기 어려운 극악의 티켓팅 난이도까지. 갖은 장애물을 뚫고 n회차 관람한 뮤지컬 '킹 키부츠'에는 드랙린 '롤라'와 엔젤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관객들을 "레이디스 앤 젠틀맨, 이런 저런 그런 분들, 그리고 당신"이라고 칭한다. 자신들 역시 신사와 숙녀 사이 어디쯤에 있는 '이런 저런 그런 분들'이다.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진한 화장과 높은 하이힐,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세상의 무수한 편견에 당당하게 맞선다. 드랙린은 타고난 성과 정신적인 성이 일치하지 않는 '트랜스젠더'와는 차이가 있다. 어쩌면 '내가 좋아서'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시선을 감당해야 해 더 외로운 존재들일 수도 있다.

극에서 이들은 괴로워하거나, 분노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밝고, 더 화려하고, 더 흥에 겨게 춤추고 노래한다. 신사도, 숙녀도, 이런 저런 분들도, 마지막 당신인 '나' 자신도 스스로의 존재만으로 삶이 충분하다고 느끼게 해준다. '소수자'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에 한없는 위로를 받는다.

연극과 뮤지컬 등 공연계에서는 이처럼 젠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캐릭터나 '젠더 프리 캐스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젠더 프리 캐스팅은 배우의 성별과 관계없이 배역을 정하는 캐스팅으로, 시인 윤동주나 햄릿이 여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여성 배우가 남성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 자체를 여성으로 설정해 극을 재구성하거나 애초에 성별을 정해두지 않는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다. 고전 작품들의 경우 대부분 남성 중심의 서사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연계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Why not?'의 개념이 더 강하다. 식민지의 상황을 괴로워하는 운동주와 고뇌하는 햄릿이 여성이면 안 될 이유가 없다.

공연을 넘어 영화와 드라마, 게임 등 대부분의 콘텐츠에서 젠더, 인종,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지양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공간에서도 다양성이 보편화될 길 기대하고 싶다. '이런 저런 그런 분들과 당신'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곽지혜 취재1부 기자

全南日報	사창·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www.jnilbo.com m.jnilbo.com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차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